

10 오피니언

사설

체대만의 '규칙과 문화' 극복하자

체육대학은 '대한민국 최초의 체육대학'이라는 전통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 경희 체육인들은 대한민국 스포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역사의 여러 페이지를 장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명성에 걸맞지 않게 이른바 '체대 문화'로 인한 오명이 수차례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최근 체육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그런 일들의 연장선 위에 있다.

체육학과 학생회는 지난 몇 년간 신입생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를 받고 있었다. 학생회 단위에서 신입생에게 자기소개서를 받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다. 학생회는 위험을 예방하고 인원 파악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명하지만, 그 해명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애당초 자기소개서 관련 내용이 공지된 단체 대화방에서 입학생 수는 이

미 파악된 것이나 다름없다. 질문 문항에서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자기소개서의 세부 질문들은 '지금 이 어느 시대인데'라는 말을 사용하기에 적절한 수준이다. 이 상황, 마음에 드는 선배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그 목적에 대한 의심도 들게 한다. 자기소개서를 받는 의도가 어떠한지, 다수의 학생이 제출 자체에 부담을 느끼겠거나 그 질문에서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지난 몇 년간 시행된 자기소개서 제출에 대해 학생회 중 그 누구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했던 것 역시 아쉬운 지점이다.

체육대학에는 분명 다른 단과대학과 구별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가령 체육대학에서 교직원과 학생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에는 반말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 체육대학 건물을 방문했을 당시, 년

누구나고 문던 교직원에게 대학주보 기자라는 대답을 내놓자 갑자기 존대를 받은 경험도 있다.

체육대학 학과사무실과 학생회실에는 관등성명을 요구하는 출입 요령이 아예 부착돼 있기도 하다. 군대와 같은 엄격한 계급사회에서 행해지는 관등성명이 우리 학교에서 이뤄지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하다.

"제안일 뿐 강요는 아니었다"라는 것이 체육대학 학장과 학생회의 입장이지만, 학장과 학생회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 더욱이 상술된 것들이 암암리에 자리 잡혀 있는 만큼, '제안일 뿐'이었다는 해명은 설득력을 얻기가 힘들어 보인다. 더욱이 '예전 같았으면 대학주보에 제보한 익명의 학생들을 찾아 족쳤겠지만'이라고 수업시간에 이야기한 체대 교수도 있었던 것을 보면 '제안'과 '강요'

사이에서 학생들이 어떤 쪽을 더 피부로 느꼈을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체육대학은 폭행 사건이 있었던 지난 2014년 당시 학장이 직접 나서 학생 면담을 한 바 있다. 이후 폭언과 폭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때와 비교했을 때, 현재 체육대학의 대응은 분명히 아쉽다. 체육대학 송종국 학장은 "학장실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라는 말을 전했지만, '체대 문화'에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학장실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 오히려 공정한 조건에서 설문조사라도 하는 것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기에 적합한 편일 것이다.

체육대학의 부정적인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법은 다수의 학생이 그들의 의견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세시봉

한 잔의 여유



정다연 기자
ekdusgood@khu.ac.kr

"악마처럼 검고 지옥처럼 뜨거우며 천사처럼 순수하고 사랑처럼 달콤하다" 18세기 프랑스 외교관 탈레랑이 커피를 두고 한 말이다.

탈레랑의 말처럼 커피는 양면성을 지닌다. 누군가에게는 '여유'를 즐기게 해 주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단순 '카페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을 제외하고 2022년의 커피콩 수입 액수는 12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2021년에 비해 45% 증가한 수치다. 2021년 말부터 원두값이 치솟은 탓이다. 이에 커피값이 오르고 한국인이 체감하는 원두값 부담은 커졌다. 원두값 부담이 커지며 소비량이 줄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로는 달랐다. 비싸지면 줄일 수 있는 기호식품 커피지만, 비싸진 가격이 소비량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굳이 이유를 꼽으라면 한국인들이 피곤한 탓일 것이다. 한 취업 포털에서는 커피를 왜 마시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잠을 깨기 위해서'가 1위를 차지했다. 커피 속에 들어있는 132mg의 카페인으로 우리의 잠을 쫓아주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출근길 테이크아웃 잔에 담긴 커피, 산더미로 쌓인 책 옆에 놓인 커피는 하루하루를 버티게 한다.

과연 현대인들은 '카페인'을 마시는 것인지 '커피'를 마시는 것인지 의문이다. 커피가 지닌 매력은 모른 채 피곤을 달래기 위해 마시는 커피는 단순 카페인으로써 존재할 뿐이다. 바쁘게 흘러가는 사회 속 자신 템포는 잊고 끼워 맞춰지기 위해 카페인의 도움으로 쫓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커피의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상 속 쉼터를 내어주기도 한다. 쌉쌀하고, 달콤하며, 상큼함을 음미할 수 있는 다양한 커피의 품미에 사람들은 매료된다. 맛과 어우러지는 깊은 향, 그리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것도 커피 소비 이유가 될 수 있다. 심지어는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는 '홈카페'도 생겨났으니 말이다.

졸음을 견디기 위해 마시는 커피는 잠시 내려놓고, 휴식을 위한 커피를 즐겨보는 것이 어떨까. 바쁜 일상 속에서도 현실을 견디는 모두에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선물하고 싶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휴무기간을 대하는 구성원의 모습

구성원의 역할



박서현 기자
parkseohyun@khu.ac.kr

'그린·에코 캠퍼스 구현으로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참여하고, 구성원 재충전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에코프렌들리 워크 시행을 알리는 공지문이다. 에너지 사용량 절감이라는 목적 아래 학내 구성원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까.

학교는 사회에 대한 대학의 책임을 다하려는 취지로 시작했다. 다른 대학 역시 집중휴무를 실시하지만 'Eco-Friendly Campus Week'라는 명명은 고유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학교는 십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성과를 거뒀다. 교직원의 만족도 역시 높아 복지 향상에도 기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공식적인 휴무 기간으로 학생이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

제에 무방비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행복기숙사가 합격자 명단을 휴무 기간이 끝난 후 재공지한 것은 단순한 혼란을 넘어 금전적인 피해까지 낳았다.

에코프렌들리 워크 기간이라도, 긴급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특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피해자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특히 학생의 불편이 최소화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인식하고 있는 일부 부서는 휴무 기간 업무 처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 직원끼리 차례를 정해 휴무한다는 부서도 있었고, 학생을 상대로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집중 휴무라는 사실을 체감한 적 없다는 부서도 있었다.

긴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 부서를 임시 마련하는 등 학교 차원에서 휴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고민하는 것도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 공익을 위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학내 구성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평 세계시민으로 가는 길

경희대학교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군태**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이동건**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피앤디